

<논리철학 논고> 읽기

2025. 4. 14.

이강룡 (교양 지식 저술가)
readme.kr / 유튜브 "올읽쓰"

대본: 이영철 옮김, <논리-철학 논고>, 책세상, 2022(2006).

참조: <https://people.umass.edu/klement/tlp/tlp.html>

세계와 언어는 형식을 공유합니다. 즉, 구조가 같죠.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앎으로써 세계를 알아갑니다. 세계와 언어가 공유하는 논리적 형식은 언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넓은 것이어서, 언어로 충분히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언어와 사물, 현상 등을 가능케 하는 어떤 바탕, 또는 가능성이 '논리적 형식'입니다.

2.1 우리는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다.

즉, 언어는 표현된 세계, 그려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 그릴 수 있는 것은 '논리적 형식' 덕분입니다.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형식이 같기에 모사하고 모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2 그림은 현실의 모형이다.

2.2 그림은 모사된 것과 모사의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

세계와 언어는 논리적 형식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므로, 세계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3.03 우리는 비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카르트는 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고 했죠.

신, 윤리, 진, 선, 미... 이런 것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13 논리적 공간 속의 사실들이 세계이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고 실천하며,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진, 선, 미, ... 이런 것들을 철학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를 초월한 것이라, 언어로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말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철학은) 그런 것에 관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닌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확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좋음과 아름다움은 우리 인식 밖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초월적인 것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실천이성 비판>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성을 다룹니다. 칸트에 따르면 절대적인 존재나 선(좋음) 같은 것은 우리 인식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요청'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본질을 언뜻언뜻 드러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적은 것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어는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철학의 역할은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따라서 언어를 명료하게 사용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역할이 되어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들만이 세계를 이루는 사실들입니다. 세계를 초월한 것들은 "드러날 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1919년 10월말 비트겐슈타인은 문예지 <브레너>의 편집자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 <논리철학 논고>의 의의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윤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의 집필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4.115입니다.

4.115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말하자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게 될 거라는 점인데요, <논리철학 논고>에서 다루지 않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말할 수 없는 것들)가 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심오하고 중요한 것들임을 암시합니다.

쿠르트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서, 참의 영역이 증명의 영역보다 더 넓고 심오한 세계임을 입증하였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괴델의 관점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 방식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인 세계에서 다룰 수 없는 심오한 세계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4.1212 보일 수 있는 것은 말해질 수 없다.

이 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논리철학 논고>에 나오는 '보일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방식이 꼭 시각적일 이유는 없고, 굳이 감각적이어서 할 까닭도 없습니다. (물론 감각적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다"(zeigen)라는 말의 뜻은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스럽고 신비한 내적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성스럽고 신비한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그것이 샘솟아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이나 글로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해질 수는 있어도,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사랑과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순 있다.

- 우리 삶에 문득 드러나긴 하지만, 언어로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언어를 구성하는 원리인 "논리적 형식"도 말해질 수는 없고 그저 보여질 수 있을 뿐입니다. '논리적 형식'은 언어를 가능케 하는 원인이므로 논리적 형식에서 나온 결과물인 언어로 논리적 형식을 충분히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언어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능력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한국어든 영어든, 다른 어떤 언어든 모두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언어를 이루는 어떤 배후의 기본 구조라든지 형식이 우리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짐작하고 믿게 되죠. 언어생활에서 명제들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것들을 보노라면 명제의 배후에 분명히 어떤 논리 형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적 형식은 그 정체가 언뜻언뜻 드러날 뿐, 자기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체는 '보여질 수는' 있어도 '말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종이지도로 표현된 지구가 있습니다. 종이지도는 지구를 표현한 것이고 분명히 사실적인 지리 정보가 그려져 있고 표현돼 있지만 지도 안에 지구의 정체가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13 명제에는 투영에 속하는 모든 것이 속한다; 그러나 투영된 것은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영된 것의 가능성은 속하지만, 이 투영된 것 자체는 속하지 않는다.

명제는 세계의 사실을 표현하지만 세계의 정체, 논리적 형식 등을 표현할 순 없습니다.

전자,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원자를 구성하는데, 기본 입자들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입자들을 그냥 한곳에 모아두기만 한다고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명제도 그러합니다. 낱말들을 나열하고 모아두었다고 명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원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물리 법칙이 명제에서는 '논리적 형식'입니다.

3.141 명제는 낱말들의 혼합물이 아니다. - (음악적 테마가 음들의 혼합물이 아니듯이 말이다.)

명제는 무수히 많은 여러 상황 중 하나를 묘사합니다.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라는 특정한 상황을 묘사할 수는 있어도,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를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일일이 지정하고 명명할 순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3.144 상황들은 기술될 수는 있으나 명명될 수는 없다.

3.1432 "복합적 기호 'aRb'가 a는 b에 대해 R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가 아니라, "a"가 "b"에 대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aRb임을 말한다.

기호로 표현된 명제 aRb 가 있다면 그 의미는 우선 단순한 기본 요소들이 결합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들로 표준 모형을 설명하듯, 명제도 그런 기본 입자들에 해당하는 단순 기호들로 구성됩니다.

3.201 이러한 요소들을 나는 "단순 기호들"이라고 부르고, 그 명제는 "완전히 분석되었다"라고 부른다.

완전히 분석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들이 모두 밝혀졌다는 뜻입니다. 언어학 용어로 설명하자면 '형태소'(뜻을 지닌 말의 최소 단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비트겐슈타인은 명제 안의 그런 기본 입자들을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3.202 명제에서 적용된 단순 기호들을 일컬어 이름이라고 한다.

3.023 이름은 대상을 의미한다. 대상은 이름의 의미이다.

3.22 명제에서 이름은 대상을 대신한다.

즉, 세상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대상인 것이고, 그 대상을 일컫는 이름은 명제로 표현된 상황의 최소 표현 단위인 것이죠.

(계속)